

뉴스 라운드업

- 중동 확전(호르무즈 해협 무인정 피격·후티 반군의 예멘 항구 점령)에 유가 급등, WTI 배럴당 102.48 달러(+6.69%)로 100 달러선 돌파
- ECB 기준금리 2.5%로 25bp 추가 인상, 물가·성장 전망 동시 상향하며 매파 기조 재확인 — 유럽 증시 2 개월래 최저, 국채금리 다년래 최고
- 美 생산자물가 예상 상회로 9 월 FOMC 인상 기대 64%까지 확대, 美 10 년물 국채금리 4.961%(+11.6bp)로 급등하며 뉴욕 증시 동반 하락
- 금 -1.89%·구리 -4.95% 하락, 달러인덱스는 +0.30% 강세 — 지정학 리스크 고조에도 금리·달러 강세가 안전자산 수요를 압도

중동 확전에 따른 유가 급등과 물가 서프라이즈가 겹치며 주요국 중앙은행 긴축 압박이 동시에 커졌다

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재점화된 데 이어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연안 요충지를 장악하며 사우디 원유 수출로까지 위협이 번지고 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11 월 중간선거 이후에나 끝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미 재무부는 이란 관련 라이선스 요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밝히며 추가 제재에 나섰다. 이런 공급 차질 우려에 WTI 는 하루 만에 6.69% 급등해 배럴당 102 달러선까지 올라섰고, 이는 유럽·영국 국채금리를 다년래·수십년래 최고 수준으로 밀어올린 핵심 배경으로 풀이된다.

이런 유가발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ECB 는 예금금리를 2.5%로 25bp 추가 인상하며 올해 두 번째 긴축에 나섰다, 2026~2028 년 물가 전망을 각각 3.0%, 2.5%, 2.1%로 상향 조정하며 에너지發 물가 상승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. 라가르드 총재는 성장 하방·물가 상방 리스크가 공존한다고 언급했음에도 시장은 추가 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었고, 그 결과 독일 10 년물 금리가 15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는 등 유로존 국채금리가 일제히 급등했다. 영국에서도 gilt금리가 10 년물은 2007 년 이후, 20·30 년물은 1998 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으며, 11 월 BOE 회의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97%까지 반영되는 등 긴축 재료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. 이 여파로 STOXX 600 은 2 개월래 최저치로 마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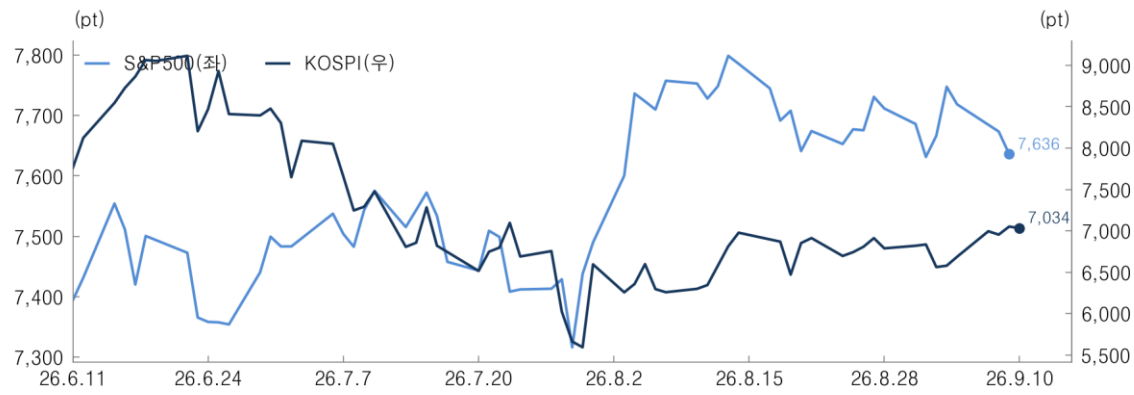
미국에서는 예상보다 뜨거운 생산자물가지표가 발표되며 9 월 16 일 FOMC 에서의 금리 인상 기대가 64%까지 높아졌는데, 이는 최근 상황이 통상적인 인하 사이클과는 거리가 먼 에너지發 물가 재점화 국면임을 보여준다. 이에 미 10 년물 국채금리는 하루 만에 11.6bp 오른 4.961%, 2 년물은 15.0bp 오른 4.586%까지 급등했고 달러인덱스도 0.30% 강세를 나타냈으며 S&P500·나스닥은 각각 0.58%, 0.65% 하락 마감했다. 다만 금은 지정학 긴장에도 달러·금리 강세 압력에 눌려 1.89% 내렸고 구리는 성장 둔화 우려를 반영하듯 4.95% 급락했다. VIX 는 8.38% 올랐으나 절대 수준(17.85)은 여전히 과거 대비 낮은 구간에 머물러 있어 시장이 패닉보다는 경계 국면에 가깝다는 하우스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. 참고로 이날 아시아 3 대 지수(코스피·항셱·CSI300)는 이 모든 이벤트가 벌어지기 전인 전일 오후에 이미 마감한 수치로, 밤사이 유가·금리 급등에 대한 반응은 오늘 개장에서 확인될 전망이다.

글로벌 주요 자산

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· 직전 확정 종가 대비 · Trading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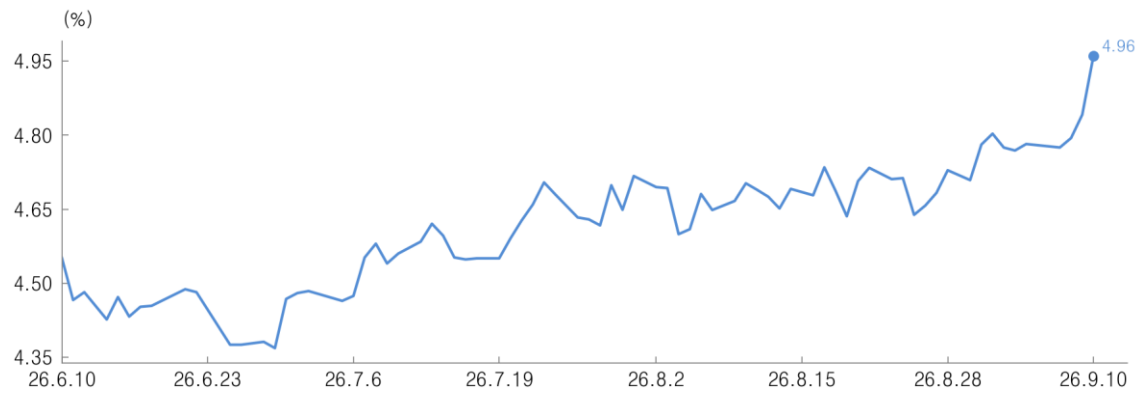
구분	자산	가격	전일 대비	기준
주식	S&P 500	7,591.70	-0.58%	9/10 종가
	나스닥	26,081.71	-0.65%	9/10 종가
	STOXX 600	635.98	-0.69%	9/10 종가
	닛케이 225	65,270.88	+0.20%	9/10 종가
	CSI 300	4,548.39	-0.53%	9/10 종가
	KOSPI	7,033.92	-0.25%	9/10 종가
	항셍	24,954.47	-1.27%	9/10 종가
환율	달러인덱스(DXY)	99.08	+0.30%	9/10 종가
	달러/엔	154.37	-0.03%	9/11 종가
	유로/달러	1.16	-0.03%	9/11 종가
	달러/원	1,348.79	+0.71%	9/10 종가
	달러/위안	6.71	-0.02%	9/10 종가
금리	미국 10 년	4.961%	+11.6bp	9/10 종가
	미국 2 년	4.586%	+15.0bp	9/10 종가
	일본 10 년	2.923%	+3.8bp	9/10 종가
	독일 10 년	3.502%	+5.1bp	9/10 종가
	한국 10 년	4.455%	+6.5bp	9/10 종가
크레딧	미국 HY 스프레드	271bp	+4.0bp	9/9 종가
원자재	WTI	102.48	+6.69%	9/10 종가
	금	4,317.12	-1.89%	9/10 종가
	구리	6.55	-4.95%	9/10 종가
변동성	VIX	17.85	+8.38%	9/10 종가

S&P500 vs KOSPI — 최근 3 개월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— 최근 3 개월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

권역	요약
미국 뉴스 44 건 HIGH	• 8 월 미국 생산자물가(PPI) 0.4% 상승으로 9 월 Fed 금리인상 기대 70%까지 급상승 ↳ 재화 가격 1.1% 상승, 항공료·의료 서비스 등 광범위 비용 압력 가시화 ↳ Fed 9 월 15~16 일 회의 25bp 인상 기대 70%(전주 50%에서 급상향), 여름 인하 시나리오 완전 소실 ↳ 내주(9 월 12 일) 8 월 소비자물가(CPI) 발표가 추가 인상 판단의 분수령 역할 • 10 년물 국채 수익률 4.922%로 2023 년 이후 최고점 돌파, 주식 동반 조정 ↳ 10 년물 국채 수익률 +8.48bp 로 4.922% 기록 ↳ S&P 500 -0.58%, Nasdaq -0.65%, Dow -0.60% 마감, 반도체주가 낙폭 주도(Nvidia -2.3%, Micron -4.5%) ↳ S&P 500 선행 PER(forward PE) 2025 년 4 월 이후 최저 수준 갱신 • 미국, 이란 경제 고립과 호르무즈 해협 분쟁 동시 진행 — 제재 강화 및 해상 충돌 심화 ↳ 미 재무부, 모든 이란 관련 인허가 신청 사실상 거부 정책으로 전환 ↳ 'Operation Economic Outcast'(8 월 24 일 시작) 강화로 헤즈볼라·IRGC(이란혁명수비대) 자금 조달망 제재 확대, 기업·개인 추적 체계화 ↳ FinCEN(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), 불법 자금 유입 적발 대상 고발자 정보 수집 공고 • ECB 인상 후에도 유로 약세 지속 — 미국 금리 상승·지정학 리스크로 달러 강세 우위 ↳ ECB 기준금리 25bp 인상(예상대로) 후 Lagarde 총재,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 지속 경고 ↳ ECB 정책위원, 10 월 추가 인상 가능성 언급 ↳ EUR/USD, ECB 인상에도 2 주 고점에서 하락 전환 → 달러 광범위 강세(10 년물 4.92%, 이란 리스크) • Trump 5,000 달러 배당 공약(11 월 중기선거 공화당 승리 시)에 공화당 내 회의론 확산 ↳ 지급 대상 성인 약 240 만명, 소요 예산 \$1.2 조 이상(이자 수백억 달러 포함) ↳ 공화당 의원 다수, 인플레이 악화·재정 부담 우려로 공약에 반대 ↳ 트럼프 과거 관세·DOGE(정부효율부) 절감 기반 공약 미이행 선례 있음 • 8 월 미국 해상 컨테이너 수입 260 만 TEU(역대 3 위), 소비 수요 견조성 확인 ↳ 8 월 260 만 TEU, 전년동월 대비 +3.2%, 팬데믹 전(2019 년 8 월) 대비 +22% ↳ 무역정책·인플레이 불확실성에도 수입 확대 → 공급망 선행 매입·소비재 수요 견조성 반영
유럽 뉴스 92 건 HIGH	• 유럽중앙은행(ECB), 기준금리 25bp 인상하여 2.5% 도달 — 중동 에너지 충격 본격 대응 ↳ ECB 가 기준금리를 2.25%에서 2.5%로 인상(올해 두 번째), 이란-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 대응 조치 ↳ 2027 년 평균 인플레이션 전망을 2.3%에서 2.5%로 상향 조정(2026 년 3.0%, 2028 년 2.1% 시나리오), 2027 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목표(2%) 초과 지속 전망 ↳ Lagarde 총재 성명: '경제는 회복력을 입증했고 제조업이 견고하며 소비자신뢰가 회복됐으나, 에너지 가격이 식품·근원 인플레이션으로 파급될 위험이 높고,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인플레이션 상방·성장 하방 위험 존재'

권역	요약
	• 독일 10 년물 채권 수익률 3.45%, 2011 년 4 월 이후 15 년 만에 최고치 갱신 ↳ 유로존 정부채권 수익률이 수년래 최고가로 급등, 독일 10 년물(DE10YT) 3.44~3.45% 범위에서 2011 년 이후 최고 기록 달성 ↳ 영국 10 년 gilt도 2007 년 이후 최고가, 20 년·30 년 gilt는 1998 년 이후 최고가 달성, 5 년물 수익률은 5 월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 기록 ↳ 트레이더들이 ECB 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50% 이상 가격에 반영, BoE(영국중앙은행) 11 월까지 인상 확률을 97%로 반영 • 호르무즈 해협 미·이 교전 심화로 유가 \$104/배럴 돌파 — 에너지·식품 동시 인플레이션 악순환 우려 ↳ 유가가 \$104~105/배럴 수준으로 3~4% 급등하며 \$100/배럴 이상 유지, 미국·이란 대사관 및 유조선 피격 사건으로 중동 분쟁 격화 ↳ ECB 성명: '중동 분쟁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생성하고 있으며 에너지에서 식품·근원 인플레로 파급될 가능성' 경고 ↳ 유가 상승이 유로존 정부채권 수익률 급등과 글로벌 주가 동반 약세를 동시에 유도 • STOXX 600 지수 635.97p (-0.7%), 7 월 8 일 이후 2 개월 만에 최저가 기록 ↳ 광범위한 유럽 지역 주가가 동반 약세, ECB 긴축 신호와 유가 충격이 동시 작용 ↳ AB Foods 등 개별주 매도 압력 증가, 금요일 미국 CPI 발표 앞두고 시장 불안 심화 • 3 대 중앙은행 '긴축' 신호 동시 전개 — ECB·연준·일본은행의 추가 인상 가능성 부상 ↳ ECB: 금리 인상 단행 및 '데이터 의존적' 입장 고수로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 명시적 유지 ↳ 연준(Fed): 금요일 발표 예정인 8 월 미국 CPI 앞두고 9 월 인상 확률을 50% 이상으로 반영, 시장이 미국 경제의 강한 신호 주시 중 ↳ 일본은행(BOJ): 다음주 예정된 회의에서 추가 긴축 시나리오 반영, 유가 상승이 여러 지역 인플레이션을 동시 재가속시키면서 글로벌 동시 긴축 압력 고조 • 달러화 상승 반전 — 유가 상승 역풍에도 미국 경제 신호 우선 반영 ↳ 달러화가 ECB 인상 단행 및 미국 8 월 PPI 예상 상회로 상승 전환, 유가 상승 역풍 극복 ↳ EUR/USD: 어제 오후 4 세션 최저 1.1592 이후 부분 반등하여 1.1620 대 근처(일중 -0.10%) ↳ 엔화: 7 월 말 무예고 개입 이후 6% 이상 상승하며 7 개월 최고가 달성
한국 뉴스 1 건 HIGH	• 중동 해상운송 공격으로 유가 \$100/배럴 상회 지속, 신흥시장 자산 낙폭 ↳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, 위험자산 선호도 약화 ↳ 미국 경제지표 발표 앞두고 관망세 확대 • 폴란드 기준금리 3.75% 유지, 터키·한국은행도 금리 결정 예정 ↳ 한국은행의 긴축 속도·시기 판단을 위한 경제 여건 평가
남미 기타 뉴스 8 건 HIGH	• 아르헨티나 8 월 물가상승률 둔화 — 월간 1.7%, 12 개월 누적 33.5% ↳ 월간 물가상승률 +1.7%, 로이터 설문 예상과 부합하며 5 월 이후 최저 수준 ↳ 12 개월 누적 물가상승률 33.5%(7 월 33.8% 대비), 식량가격 상승 압력 완화가 주요 요인 ↳ Javier Milei 대통령의 통화 긴축 정책 기조 하에서 개선세 지속 • IMF 아르헨티나 3 차 프로그램 검토 미션 9 월 21 일 주간 개시

권역	요약
	↳ 주요 검토 과제: 외환보유고 회복 지속, 재정 위험 경감, 재정 앵커 유지 • 콜롬비아 2026 예산 재정 조달 위해 국내채 발행 25 조 페소(\$80 억) 증액 ↳ 2026 년 누적 TES 채(콜롬비아 국내 국채) 발행액 \$355.7 억에 도달 ↳ 기초 승인액 85.25 조 페소에 금회 증액분 25 조 페소 적용
EM 기타 뉴스 50 건 HIGH	• 호르무즈 해협서 이란의 미군 무인함 공격 — 중동 지정학 위험 본격화 ↳ IRGC(이란혁명수비대)의 예고 없는 공격으로 미군 함정 피격, 정확한 피해 규모는 미공개(전일 시간대로 추정) ↳ 이란의 후티 반군에 무기·작전 지도 제공, 지난주 사우디 공격 강화 지시 ↳ 후티의 홍해 진출 본격화: 예멘 모카항 점령 후 바브엘만데브 해협(호르무즈에 이어 두 번째 중요 해운 병목)으로 진격 중이며, 중동 해운로 위협 심화 • 아랍에미리트, 독일에 40 억 유로 신규 투자 공약 — 양국 경제 동맹 강화 ↳ 투자 규모: 40 억 유로 추가로 기존 34 억 유로와 합쳐 총 74 억 유로(약 740 억 달러 상당) 누적 투자 공약 ↳ 실행 내역: UAE·독일 기업 거래 94 억 유로, 데이터센터 약 1GW 용량 투자, 에미레이츠항공의 베를린-두바이 정기 노선 개설 승인 ↳ 배경: 경제 불확실성과 중동 분쟁 속 양국 지도자 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 결정 • 터키 중앙은행, 기준금리 37% 5 연속 동결 — 인상 사이클 완료, 하반기 인하 임박 ↳ 정책 배경: 최근 지표의 기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 포착, 다만 에너지가격 상승이 상방 리스크로 존재 ↳ 통화정책 전환점: 인상 완료 국면에서 곧 인하 사이클로 전환될 것으로 시장 평가 • 남아공 7 월 제조업 산출 +1.1% Y/Y, 시장 예상 크게 상회 ↳ 회복 신호: 시장 설문(-1.6%)보다 2.7 포인트 높은 성장률로 산업 회복력 입증 • 러시아, 우크라이나 국경·경제 시설 드론 공격 강화 — 물류 봉쇄 전개 ↳ 폴란드 국경 위협: 폴란드 총리 Tusk 가 러시아가 자국과 우크라이나 국경 통로를 표적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하나, 최근 한 건은 협력으로 사전 저지 ↳ 우크라이나-몰도바 국경 공격 선례: 전일 드론이 남부 오데사 지역의 국경 통과지점 피격, 2 명 사망 ↳ 경제 목표 확대: 러시아가 키이우의 주유소, 드니프로의 Bunge(글로벌 곡물 거래사) 시설 등 민간 경제 목표를 드론·탄도탄으로 집중 공격 • 이란, IAEA 의 '정치적' 조치에 NPT 탈퇴국 증가 경고 ↳ IAEA 이사회 조치 배경: 9 월 9 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(35 개국)가 이란의 핵비확산조약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엔안보리 보고 결의 ↳ 이란 반발: 최고안보회의 사무장 모센 레자에이가 IAEA 의 '정치적' 조치가 핵비확산조약(NPT) 탈퇴를 고려하는 국가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 • 알제리, 아랍에미리트와 외교관계 전격 단절 ↳ 조치: 알제리 외교부가 UAE 대사 소환 후 외교관계 단절 공식 선언, 관계 개선 수단이 '고갈됐다'는 성명 발표 ↳ UAE 입장: UAE 외교부가 알제리의 결정이 임시적이기를 희망한다는 성명 발표, 구체 단절 사유는 양국 모두 미공개

권역	요약
	• 캐나다, 우크라이나에 대공방어 시스템 등 중요 군사 패키지 지원 공약 ↳ 지원 내용: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Zelenskiy 와 회담에서 '매우 중요한' 대공방어 체계 및 에너지 산업 지원 공약 ↳ 누적 지원 규모: 2022 년 2 월 러시아 침략 이후 캐나다의 총 원조 C\$25.5 억 중 군사 지원 C\$8.5 억 ↳ 긴급성: 키이우가 미국산 Patriot 요격 미사일 심각 부족 상황 • 폴란드 중앙은행, 금리 3.75% 동결 — 2027 년 중반까지 현 수준 유지 가능성 ↳ 정책 기초: 신중한 입장 유지 중, 상품가 상승 및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상 압력 상방 방향(9 월 10 일 수요일 결정) ↳ 금리 전망: 중앙은행 총재 Adam Glapinski 가 향후 금리가 2027 년 중반까지 현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 시사 • 체코 중앙은행 이사, 추가 인상 가능하나 시장 반영치(향후 1 년 4 회)는 과도하다고 지적 ↳ 정책 가능성: 이사회 위원 Jan Kubicek 이 추가 인상 가능하되 시점은 불명확하다는 입장, 연내 3 회 추가 회의 예정 ↳ 시장 평가 비판: 금융시장이 향후 1 년 내 4 회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하다고 평가 • 이집트 8 월 핵심 소비자물가 14.9% Y/Y — 7 월(14.7%)보다 소폭 가속 ↳ 물가 추세: 하향 모멘텀 약화 신호로 평가 • 가나, 광산 채굴 계약업체의 임금·입찰 최저기준 수립 추진 ↳ 정책 목표: 채굴 규제기관이 지속 불가능한 저가 입찰로 인한 노동 조건 악화, 훈련·안전 기준 하락 방지 ↳ 업계 평가: 광산청(Chamber of Mines)이 저가 입찰의 폐해를 경고하며 기준선 도입 지지 ↳ 노동자 우려: 현지 계약업체로의 전환이 임금 저하와 직업 안정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반발
글로벌 · 교차자산 뉴스 8 건	• 미국 인플레이 신호에 글로벌 금리·유가·달러 동반 상승, 신흥국 통화 약세 ↳ 미국 8 월 생산자물가지수(PPI) 발표 후 글로벌 채권 수익률 급등, 달러 강세 — 브렌트유 배럴당 \$107.70, WTI \$102.55 로 상승(5 월 이후 처음 \$100 수준) ↳ 신흥국 통화 약세: AUD/USD 0.7157 부근 6 세션 저점(NY 오후 -0.69%), CAD/USD 1.3810 으로 3 주 고점 이후 하락 ↳ 11 일 미국 8 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 발표 예정, 예상 상회 시 추가 낙폭 우려 • IMF, 글로벌 성장률 3% 달성 경로 유지하나 채무·에너지 위험 재강조 ↳ 중동 분쟁의 에너지 충격이 예상보다 경미했으나, 유가 상승은 지속되는 상황 평가 ↳ 글로벌 공적채무가 GDP 대비 100% 근처로 상승 — 2 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 ↳ 주요 중앙은행에 물가안정 권한 준수 촉구 • EU 금융감시기구, 경제 악화 vs 주가 강세 괴리에 시장 급락 위험 경고 ↳ 지정학 긴장(중동 분쟁) 속에서도 기업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수준 유지 중 ↳ 암호화폐 시장 충격의 광범위한 금융권 확산 우려 ↳ 예측 시장에 인사이더 거래 만연 문제 지적 • 이스라엘, 레바논 헤즈볼라 지하시설 파괴 보안 구역 확보 작전 선언

권역	요약
	-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국경 약 15km 떨어진 알리 알-타헤르 능선의 헤즈볼라 지하복합시설 파괴 - 보안 구역 확보 작전 완료 선언, 헤즈볼라의 재등장·역량 재구축 방지 차원의 장기 주둔 의향 표시 • 네슬레 CEO, 중동 분쟁이 공급망 비용 압박으로 제품 가격 인상·구성 변경 추진 6 개월 지속 중인 미국-이스라엘 대(對) 이란 분쟁이 직접 매출 영향은 제한적이나, 에너지·운송·원재료 비용 상승 유도 - 고비용 구조에 대응해 제품 가격 인상, 포장·구성 변경, 일부 품목 단종 등 진행 중
중국 뉴스 1 건	• 시진핑 7년 만의 인도 방문, 외교 개선 신호는 있으나 경제협력 개선 신호는 부재 - 투자 규제, 비자 발급 지연, 산업 장비 수입 제한 등 규제 장벽 지속으로 기업 간 경제 관계 개선 신호 부족
일본 뉴스 1 건	• USD/JPY 반등 제한, 154.66 저항선 견고 - 미국 5월 생산자물가(PPI) 5.4% 상회로 달러/엔 환율 반등, 154.66 수준의 저항선 상향 돌파 실패 - 유가 상승에 따른 달러 기축통화 수요 강화로 엔화 약세 압박 155 수준 근처 소폭 반등에도 매도 우위 유지, 모멘텀 제한적, 오늘 미국 소비자물가(CPI) 발표, 다음 주 연준·유럽중앙은행·일본은행 정책결정회의 개최
인도 뉴스 5 건	• 인도국립증권거래소, IPO 규모 15% 이상 축소해 이번주 청약 - 기존 투자자(인도 국영은행 SBI, 캐나다연금공사 등)의 판매 물량 약 1.49 억주에서 약 1.26 억주로 감축 - 청약 일정 9월 17~21일, 앵커투자자 입찰 9월 16일 예정 • 중동 분쟁 악화로 브렌트유 \$102/배럴 돌파, 인도 시장 주식·채권·환율 다중 영향 - 주식 시장 소폭 보합 — Nifty 50 +0.2%(23,477.8), BSE Sensex +0.19%(74,902.59), 장 마감 동시호가 중 1% 상승 후 최종 낙폭 제한 - 채권 시장은 글로벌 대비 선방: 은행권 해외송금 유동성이 인도 국채를 글로벌 매도 압력으로부터 완화, 미국 10년물 수익률은 +3bp 상승한 4.8650%로 2023년 11월 이후 최고 - 환율 약세 심화: 루피 -0.3%로 95.44/USD 마감, 3일 연속 하락세이면서 7월 중순 이후 최대 낙폭 기록 — 인도중앙은행(RBI), 국영은행 통한 달러 매도로 지지 • 인도, 주말 BRICS 정상회담 개최 중 미국-이란 전쟁으로 회담 합의 불투명 9월 12~13일 뉴델리 정상회담 예정, 이란과 UAE(아부다비) 대립으로 공동선언 합의 미정 - 모디 총리의 중국·러시아 양자회담 병행 예정
브라질 뉴스 11 건	• 10월 대선 결선 여론, Flavio Bolsonaro와 Lula 46% 수준으로 동일 - Atlas/Bloomberg 여론조사에서 결선 Flavio 46.4% vs Lula 46.2% 거의 동일 수준(표본 5천명, 9월 4~9일 조사) 8월 말 대비 Flavio는 3.8p 상승(42.6% → 46.4%), Lula는 2.9p 하락(47.1% → 46.2%) 1차 투표 예상, Lula 43.0% > Flavio 37.4% > Cury 6.6% • 선거 임박 속 정치 긴장 고조, 대법관의 경찰청장 정직 및 사법부 내 충돌 - Mendonca 대법관, Lula의 연방경찰청장 정직 결정(9월 10일) - 동 대법관이 Moraes 대법관 관련 보고서 공개로 탄핵 요구 유도, 사법부 내 갈등 심화 - Lula 아들 사업 의혹을 둘러싼 선별적 수사 진행 중이라는 비판 제기

권역	요약
	• 경제 둔화 심화, 서비스업 정체 속 정부의 휘발유 가격 인하 ↳ 브라질 서비스업 7월 월간 0% 보합(예상 +0.2%), 전년동기 +0.9%(예상 +1.1%) 모두 시장 예상 하회 ↳ 서비스업이 GDP의 약 70% 차지하며 연초 이후 계속 정체, 경제 둔화 신호 강화 ↳ 중동 공격으로 유가 \$100/배럴 상회 속 정부, Petrobras 세제감면으로 소비자 휘발유 가격 리터당 -0.19 헤알 인하
프론티어 뉴스 1 건	• 케냐, 세계은행 긴급자금 약 4억달러 6주 내 수령 ↳ 이란 전쟁 사태 이후 신청, 에볼라·엘니뇨·고유가 대응용 ↳ 세계은행 기존 미집행 자금의 신속 배분 구조

출처: Reuters,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